

# “홈경기 부진 아쉬워... 내년엔 꼭 1부 승격”

광주 FC 박진섭 감독

K리그2 준 PO서 대전에 0-1 석패  
행운이 준 기회였고 방향 찾은 경기  
팀 정비해 더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광주 FC의 '어게인 2014'는 아쉬운 실패로 끝났다. 패장이 된 박진섭 감독은 '좋은 기회였고, 방향을 찾은 경기였다면 광주의 더 큰 도약을 이야기했다.

광주는 지난 28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대전 시티즌과의 2018 K리그2 준플레이오프에서 0-1 패를 당했다.

광주는 우승팀 아산 무궁화의 승격 자격 박탈로 준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행운'을 얻었지만 단판 승부에서 지면서, 승격 도전을 멈춰야 했다.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린 지 3분 만에 이승모가 경추 미세 골절 부상으로 교체됐고, 중요한 경기라는 중압감과 동료의 부상이라는 돌발 변수까지 겹치면서 광주 선수들은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에이스' 나상호의 공백이 컸다.

경기가 끝난 뒤 박진섭 감독은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준 것 같아서 고맙다. 준비하면서 힘든 것은 없었다. 선수들의 분위기가 좋았고 하려는 의지도 있었다. 운 좋게 기회도 왔다. 결과는 아쉽지만 준비를 잘 해주었다"며 "2주 동안 준비한 공격적인 부분에서 나상호 없는 부분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경기에 많이 나타나지 못했다. 후반 실점에 대해 주의를 했고 이런 부분을 인지시켰는데 잘 안 됐다. 비기면 안 되는 경기였는데 실점을 하다 보니 어려웠다"고 돌아봤다.

역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나상호'였다.

이날 대전은 거친 플레이로 광주를 몰아붙였다. 여기에 이승모가 부상으로 실려나가면서 광주 선수들은 동료인



모습을 보였다. 정규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펠리 페와 두아르테가 공격의 핵심으로 뽑혔지만, 침착하고 세밀하게 플레이를 하지 못 했다.

박 감독은 "나상호가 뛰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격수들이 부진했던 장면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다"며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하니 그런 감정적인 성향이 나온 것 같다. 컨디션 좋지 못했다"고 기회를 살리지 못한 공격을 가장 큰 아쉬움으로 꼽았다.

아쉬움은 남지만 박 감독은 "좋은 기회가 생겨서 플레이 오프까지 하게 된 게 나와 선수들에게 좋은 경험이 됐다. 부족했던 부분을 경기를 보면서 알았고, 어떻게 경기를 운영하고 마무리해야 하는지 방향을 찾은 것 같다"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박 감독이 찾은 방향은 '여유'다.

박 감독은 "좀 더 여유가 있어야 한다. 우리 팀이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면 패스 미스도 나오고, 중요한 찬스에서 못 치는 경우도 나온다. 선수들에게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야 한다. 기본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래도 선수들이 고생을 해서 플레이오프까지 온 게 고맙다. 선수들에게 많은 경험이 됐을 것이다"고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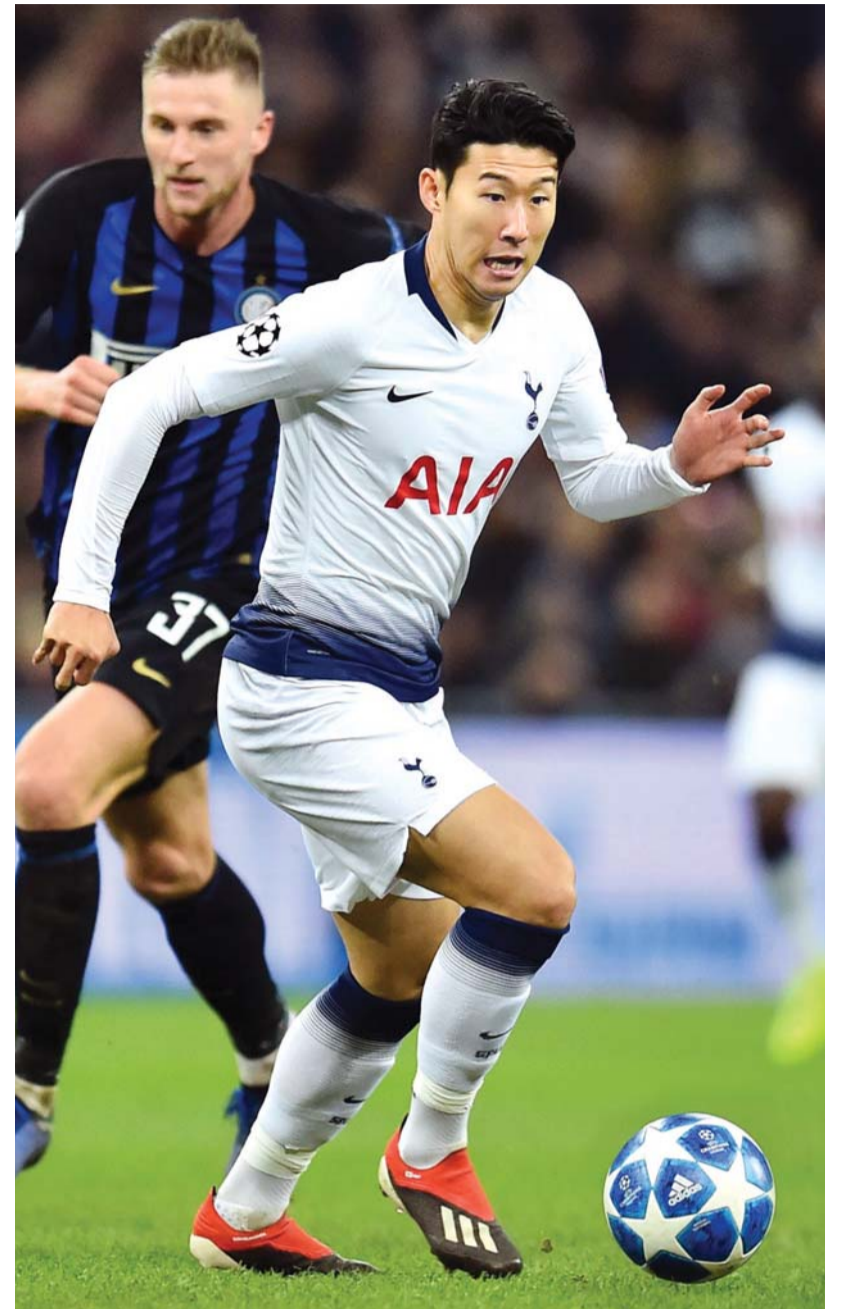
'초보 감독'으로 광주에서 보냈던 첫 시즌. 그는 '디테일한 잔소리의 감독'이었다고 자신을 평가했다.

박 감독은 "선수들에게 디테일한 잔소리를 많이 했던 감독이다. 큰 것은 많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사소한 기본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내년에는 큰 틀만 이야기하면 좋겠다"며 "(평소 강조했던) 생각하는 축구는 20-30% 해낸 것 같다. 내가 늦게 와서 선수 구성도 쉽지 않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언급했다.

올 시즌 많은 응원을 보내준 홈팬들에게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이야기했다.

박 감독은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승격을 못 해서 죄송하다. 올 시즌 홈경기 승률이 좋지 못했던 부분도 죄송하고 아쉽다. 내년에는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토트넘)이 2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5차전 인터밀란과의 경기에 교체 출전해 드리블하고 있다. 손흥민은 이날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팀의 1-0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연합뉴스

## 손흥민, 인터밀란전 팀 승리 '한 몫' 유럽무대 100호 골은 다음 경기로

손흥민(토트넘)이 프로 데뷔 후 100호 골 달성을 아쉽게 다음 경기로 연기했다.

손흥민은 29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 5차전 인터밀란(이탈리아)과 홈경기에서 교체 출전해 팀의 1-0 승리에 힘을 보탤었다.

손흥민은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손흥민은 0-0으로 맞선 후반 17분 루카스 모우라를 대신해 그라운드를 밟았다.

그는 최전방 원톱으로 나섰다. 투입 직후 빠른 스피드로 상대 뒷공간을 노렸는데,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

손흥민은 부지런히 움직였다. 최전방에서 압박 플레이를 펼치며 상대 수비라인을 흔들었고, 많은 움직임으로 기회를 엿봤다.

후반 28분엔 상대 역습을 끊다가 엘 로카르도를 받기도 했다.

후반 35분에 나온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결승 골에도 간접적으로 관여했다.

토트넘 무사 시소코는 역습 기회를 잡았는데, 이때 손흥민이 오른쪽 측면을 돌파해 수비수들을 분산시켰다.

공간이 나오자 시소코는 페널티 지역 인근으로 진출했다. 이후 에릭센이 침착하게 원발 슈팅을 시도해 골망을 갈랐다.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후반 막판 2선으로 물러나 수비에 힘을 실었다.

손흥민은 유럽축구통계사이트 우스 코어닷컴으로부터 평점 6.10점을 받았다. 팀 내에선 최하점이다.

한편 토트넘은 2승 1무 2패를 기록해 승점 7점으로 조2위 자리에 올라섰다.

인터밀란과 나란히 승점 7을 기록하고 상대 전적에서도 1승1패로 균형을 맞췄지만 원정 다득점에서 앞섰다.

토트넘은 FC바르셀로나(스페인)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결과에 16강 진출 여부가 갈린다. /연합뉴스

## 실신 ... 경기 중단 ... 응급처치 ... 발빠른 대처가 이승모 구했다

이승모 "모든분들께 감사, 빨리 회복 좋은 모습 보이겠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김희곤 주심은 단호한 손짓으로 선수들을 물러나게 한 뒤 의료진을 불렀다.

긴박하게 응급처치가 이뤄진 뒤 대기하고 있던 엠블런스가 광주 FC 이승모를 싣고 나가기까지는 채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승모의 생사가 걸렸던 '골든 타임'이었다.

이승모는 지난 28일 K리그 2 준플레이오프를 위해 대전월드컵경기장을 찾았다.

전반 3분 이승모는 공중볼을 다루기 위해 뛰어올랐다가 그라운드로 거꾸로 떨어졌다. 목 부위가 심하게 꺾이며 바닥에 충돌한 그는 의식을 잃었고, 이승모의 상태를 파악한 주심은 바로 경기를 중단시켰다.

큰 충격에 순식간에 몸이 경직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주심의 판단으로 빠르게 심폐 소생술이 이뤄졌다. 선수들도 경직을 풀기 위해 다리를 높이 들어 흔들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승모를 지켜봤다.

다행히 의식을 찾은 이승모는 유성 선병원으로 이동해 경추 3번 7번의 미세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이승모는 왼손 중지 손가락 골절을 추가로 확인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2-3개월이 걸리지만 많은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이승모의 부상 장면이었다.

지난 2011년에는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활약했던 신영록이 경기 도중 심장마비로 쓰러진 적이 있다. 당시 사례가 계기가 되어 프로축구연맹과 각 구단은 심판과 선수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하고 있다.

신영록, 이승모의 경우와 달리 지난 2000년 프로야구 그라운드에서는 낮은 대리로 인해 소중한 선수를 잃기도 했다. 롯데 임수혁이 경기 도중 쓰러졌지만 제대로 응급 처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뇌사상태에 빠진 임수혁은 지난 2010년 팬들의 애도 속에 세상을 떠났다.

이날 광주 선수들은 이를 악물고 경기를 뛰었다. 동료에 승리를 안겨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오히려 흥분한 광주 선수들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결국 경기가 0-1 패로 끝났고 광주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주저앉아 평평 눈물을 쏟았다.

눈물로 2018시즌 마지막날을 보낸 광주 선수들은 다행히 29일 밝은 미소로 이승모와 재회할 수 있었다. 광주 선수들은 이날 이승모의 병실을 찾아 서로를 격려했다. 빠른 대처가 만들어준 소중한 장면이었다.

이승모는 구단을 통해 "점프 장면까지 기억이 나고 이후 응급실 도착까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많은 분이 걱정해주시는 데 너무 감사드리고 큰 부상은 아니니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빨리 회복해서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다. 감사하다"고 안부를 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8일 대전과의 준플레이오프 경기에서 경추 미세 골절 부상을 입고 조선대 병원에 입원한 광주 FC의 이승모가 29일 병문안을 온 동료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 한국프로축구연맹 임직원들 심폐소생술 교육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9일 축구회관 2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기도에 이물질이 걸려 질식사상태에 빠졌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법)에 대한 강의와 함께 심폐소생술 방법 및 AED(자동 제세동기) 사용 등 실습이 이뤄졌다.

연맹은 지난 2016년부터 선수단, 심판, 연맹 및 구단 관계자, 경기감독관 등 K리그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경기 중이나 일상생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조치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 28일 광주와 대전의 K리그2 준플레이오프 경기 중에는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머리부터 떨어진 이승모가 김희곤 주심의 신속한 조치로 의식을 되찾기도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축구 광주FC의 미드필더 이승모가 28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2(2부 리그) 승강 준PO 대전과 경기에서 다쳐 응급조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전북, 최강희 감독 후임 '무리뉴 사단' 출신 모라이스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중국으로 떠나는 최강희 감독의 후임으로 조제 모라이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을 보좌했던 조제 모라이스(53) 감독을 낙점했다.

전북은 29일 모라이스 감독을 5대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전북의 첫 외국인 사령탑이다.

모라이스 신임 감독은 인터 밀란(이탈리아),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첼시(잉글랜드) 등에서 모라이스 감독의 수석 코치로 활동한 '무리뉴 사단' 출신이다. 2009-2010시즌 인터 밀란의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컵대회까지 트레블 달성 등에 힘을 보탤었다.

2014~2015년엔 알사바브(사우디아라비아) 감독으로 아시아 무대도 경험했다.

2005년부터 이어진 최 감독 체제에서 'K리그 1강'으로 군림해 온 전북은

"유럽에서 뛰어난 경험과 경력을 갖춘 모라이스가 팀이 추구하는 축구 철학과 위상에 부합하는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모라이스 감독은 "전북의 명성을 잘 안다. 아시아 최고의 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돼 기대가 크고 선수들과 빨리 만나고 싶다"며 "유럽에서의 경험을 통해 쌓은 전술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백승권 단장은 모라이스 감독에 대해 "전북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이 도약시킬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인물이"라며 "다양한 전술적 능력과 유럽 챔피언의 경험은 우리 팀에 새로운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강희 감독과 함께했던 김상식 코치는 모라이스 감독 체제에서도 전북에 남아 선수단과 코치의 가교 구실을 한다. /연합뉴스